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장
(hylim@kiep.go.kr, Tel: 044-414-1293)
-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psyang@kiep.go.kr, Tel:86-10-8497-2870)
-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86-10-8497-2870)
- 김영선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044-414-1272)
-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차 례 ●●●

1. 2016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2. 13.5 규획으로 본 중장기 경제운용 목표
3.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주요 내용 ●●●

-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16년 3월 5~16일 개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6년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을 심의·확정함.
- ▶ 2016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안정적 성장과 공급 측 구조개혁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6.5~7.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입장
 - 특히 2016년에는 최저 성장률(6.5%)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2015년 2.4%)로 확대하고, 총통화(M2) 및 사회총용자 규모를 각각 13% 확대
 - 향후 중국경제는 당분간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며, 추가적인 지준율과 금리 인하가 예상됨.
- ▶ 중국 전인대에서 '13차 5개년 규획 강요(2016~2020년, 13.5 규획)'가 심의·확정됨.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13.5 기간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확대
 - 향후 5년간 신흥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도시화와 일대일로로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구도 변화, 핵심분야 개혁을 통한 제도 환경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 기대
- ▶ 중국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은 대중 수출 둔화세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전통제조업 국산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 등으로 애로 불가피
 - 2016년에도 경기요인(중국 내수 및 세계경기 부진 → 중국 수출 부진)과 구조적 요인(한국의 가공무역 중심 수출구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한국은 향후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촉진 등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맞추어 공급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13.5 기간에 추진될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농업현대화, 서비스업 육성 등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중 투자 확대, 대중 수출기회 포착 등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

- 중국 제12기 4차 양회(兩會)¹⁾가 2016년 3월 3~16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²⁾ 3월 3~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³⁾ 3월 5~16일)되었으며, 경제운용 관련 실질적 내용이 전인대를 통해 발표됨.
- 중국정부는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工作報告, 국무원)’,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⁴⁾ ‘2016년 정부 예산안 보고(재정부)’,⁵⁾ ‘13차 5개년 계획 강요’⁶⁾를 심의·확정함.
- 3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전년도를 평가하고, 2016년 경제와 사회발전 주요 예상 목표치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향후 5년간(2016~20) 중국의 경제·사회운영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을 심의·확정함.
-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 10. 26~29)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가 통과됨.

1. 2016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세계경기 부진,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성장 감속, 구조조정, 성장동력 전환 등으로 2016년에도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
- 이에 2016년에는 ‘경제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공급 측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방침 아래 △ 안정적 성장 △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 △ 물가안정 △ 민생·복지 증진 △ 국제수지 균형 등 5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20년 ‘전면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목표(2016~20년 중 평균성장률 6.5% 이상),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둔화, 고용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2015년 목표 7.0%, 실적 6.9%)로 설정

1)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하여 ‘양회’라고 지칭함.
2) 명목상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로서 공산당 외 기타 정당, 각 단체와 분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3) 명목상 중국 최고 국가기관이며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매년 참가함.
4) 「关于'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执行情况与'16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草案的报告」.
5) 「关于'15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16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6)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草案)」.

■ [경제구조 개선] 투자와 소비 등 내수의 성장동력 강화, 서비스업 및 R&D 비중 제고, 배출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

- 2015년 서비스산업/GDP 비중 50.5%, R&D투입/GDP 비중 2.1%, 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 66.4%, GDP 단위생 산당 에너지소모율 -5.6% 등

※ 2015년 3차산업 성장기여율이 크게 확대(2014년 50.6% → 2015년 57.7%)되는 가운데 1차산업(2014년 5.3% → 2015년 5.2%)과 2차산업(2014년 44.1% → 2015년 37.1%)의 기여율은 하락. 최종소비의 성장기여율이 15.4%p 증가(2014년 51.0% → 2015년 66.4%)하는 등 소비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 고정투자의 기여율은 하락

■ [물가 안정] 이월요인(+0.5%p 상승 요인)과 신규 물가상승 요인(농산물 가격 상승, 가격개혁 요인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시장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CPI 상승률 억제선을 3.0%로 제시

※ 2015년 물가상승률 1.4%,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률 -5.2%

■ [민생·복지 증진] 2016년 도시지역 신규고용을 1,000만 명(2015년 실적 1,312만 명) 이상 유지하고, 실업률은 4.5% 이내(2015년 실적 4.05%)로 억제하며, 1,000만 명 이상의 농촌 빈곤인구 감축, 호구인구 도시화율 1.3%p 제고 등의 목표를 설정

- 매년 765만 명의 대학 졸업생과 철강·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약 180만 명) 발생 등으로 2016년에도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

■ [국제수지 균형] 교역증가율 목표(2015년 6%)를 제시하지 않고 중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은 세계교역 증가율 보다 높게 유지하고 서비스무역 비중을 제고하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 제시

표 1.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5년 실적과 2016년 목표

지표	2015년		2016년 목표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약 7.0	6.9	6.5~7.0
CPI 상승률(%)	약 3.0	1.4	3.0 내외
도시 신규취업자 수(만 명)	1,000 이상	1,312	1,0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4.05	4.5 이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5	9.8(실질 11.8)	10.5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3	10.7(실질 10.6)	11.0%
무역증가율(%)	약 6	-7.0	안정적 수준 회복
총통화(M2) 증가율(%)	약 12	13.3	13.0
사회용자총액 증가율(%)	-	12.4	13 내외
재정적자(조 위안)	1.62 (중앙 1.12, 지방 0.5)	1.62 (중앙 1.12, 지방 0.5)	2.18 (중앙 1.4, 지방 0.78)
재정적자/GDP(%)	2.3	2.4	3.0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나. 2016년 거시경제 운용 기조

■ [거시경제정책 기조] 13.5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2015년과 같이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穩健)적 통화정책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

■ [적극적 재정정책] 감세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지출의 효율성 강화, 지방의 특별채권 발행 확대와 지방채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능력 강화에 중점을 둠.

- 재정부가 제출한 2016년 정부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15조 7,200억, 18조 715억 위안, 재정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5,600억 위안 늘어난 2조 1,800억 위안으로 편성
-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적자를 각각 2,800억 위안 확대(중앙정부 재정적자 1.4조 위안, 지방정부 적자 7,800억 위안)하고, 재정적자/GDP 비율은 3.0%로 상향조정(2015년 실적 2.4%)
- 구조적 감세정책 및 각종 수수료 인하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부담 경감 추진
- 건설,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에서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완료(5월 1일), 정부기금 취소 및 수리 건설기금 면제 범위 확대, 18개 항목의 사업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5,000억 위안 경감⁷⁾
- 정부 예산 및 부채 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확대, 정부지출의 효율성 강화
- 지방정부 채권발행 한도를 2015년 6,000억 위안에서 2016년에는 11,800억 위안(일반채권 7,800억 위안, 특별채권 4,000억 위안)으로 확대
- 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약 5조 위안)에 대한 전환채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⁸⁾

■ [안정적 통화정책] ‘유연하고 적절한(靈活适度)’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2016년 총통화(M2) 증가율을 2015년 실적(13.3%, 목표 12%) 대비 0.3%p 낮춘 13%로 설정함.
- 유동성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신용대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처음으로 사회총용자 규모를 전년 대비 13% 내외 확대(증가 규모 17.96조 위안, 2015년 15.41조 위안)한다는 목표를 제시함⁹⁾
- 영세기업과 농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데 통화정책의 중점을 둠.
- 제조업2025, 철강·석탄 등 산업구조조정, 인프라 투자, 신흥산업 등의 중점분야 발전, 서비스업 발전, 빈곤문제 해결, 농촌 및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인민은행 2015년 4/4분기 통화정책보고서)

7) 2016년 실제 조세감면 및 부담 경감액은 7,437억 위안(증치세 감면 3,836억 위안, 사회보장 관련 비용 경감 2,403억 위안, 영세기업 감면 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8) 중국정부는 2017년 말까지 총 14.7조 위안의 전환채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 3.2조 위안의 지방채 전환채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을 2,000억 위안 경감함(『经济日报』, 2016. 2. 8).

9) 중국의 사회총용자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138.14조 위안에서 2016년 말에는 156조 위안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말 현재 204%에서 218%로 상승.

- 통화정책 수단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량형 통화정책(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기준율) 이외에도 가격형 통화정책 수단(금리, 환율)을 강화함.

표 2. 2016년 재정 및 통화정책 운용방향

구분	주요 내용
적극적 재정정책	- 2016년 재정적자 규모 확대: 2.18조 위안(중앙 1.4조 위안, 지방 7,800억 위안), · 재정적자/GDP 비율: 3%(2015년 목표 2.3%, 실적 2.4%)
	- 감세 및 수수료 절감: 2016년 기업 및 개인의 부담 경감 목표액은 5천억 위안 · 건설,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분야의 증치세 전환 완료 · 일부 정부기금 취소, 수리건설기금 면제 범위 확대 · 18개 항목의 사업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소기업 → 모든 기업 및 개인)
	- 지방의 재정 능력 및 지방채 전환 지속 · 지방채 특별채권(토지비축, 교통, 수리, 도시인프라 건설 등) 발행: 2015년 1천억 → 4천억 위안 · 지방정부의 전환채권 지속 발행(2015년 3.2조 위안)
	- 정부자금의 효율적 활용: 삼공비(三公費) 증가율 '0'
안정적 통화정책	-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적절한 사회총용자 증가 · 2016년 총통화(M2) 증가율을 13% 내외 증가, 사회총용자 규모 13% 내외 증가
	-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제고, 융자난 해소
	- 채권·주식 등 융자루트 확대, 고수익채·전환채·무기한여음 등 주식·채권 결합상품 등 직접금융 확대
	- 위안화환율 결정시스템 완비, 관리변동환율제도 건지,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과 탄력성 확대,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 - 효율적 해외 자본유출 관리

자료: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6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보고」.

다. 2016년의 9대 중점업무

■ [9대 중점업무] 201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사회 발전 업무로 △ 공급 측 구조개혁 △ 내수 진작 △ 핵심영역에서의 개혁 강화 △ 혁신 추동형 경제 발전 △ 농업기반 구축 강화 △ 도시와 농촌의 협조·협동 발전 △ 녹색·순환·저탄소 발전 △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 발전 △ 민생 보장과 개선 등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 공급 측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기업비용 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¹⁰⁾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금융리스크 예방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함.¹¹⁾

- 공급개혁의 핵심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급시스템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여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수요에 집중했던 거시경제 관리에서 총수요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특히 2016년에는 철강과 석탄산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에 역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자의 재배치

10) NDRC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미판매 주택은 7.19억 m²이며, 이 중 3~4선 도시가 70% 이상 차지.

11) 공급 측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6. 2. 3.):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망 참고.

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국무원이 2월 1일 발표한 철강¹²⁾과 석탄산업¹³⁾ 과잉해소 관련 의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내에 1~1.5억 톤의 철강 생산능력 감축과 향후 3~5년 내에 5억 톤 내외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 방침을 발표함.
- 공급과잉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실업자(약 180만 명 추정)의 재배치를 위해 중앙재정으로 1,000억 위안의 전문 보조금을 책정하고, 이 중 500억 위안을 2016년에 집행함.

표 3. 2016년의 공급 측 개혁 추진방향

구분	주요 조치
과잉생산 감축	-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안전 및 기술에 대한 엄격한 표준 채택 -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통제 강화 - 엄격한 금융 및 신용 규정 적용 - 기업합병, 부채조정, 파산 등에 대해 건별로 기업과 조정 작업 진행 - 재정, 세제, 금융, 토지정책을 통해 철강, 석탄 및 여타 산업의 위기극복 및 업그레이드 지원
기업원가 절감	- 세금, 노동·금융·에너지 비용, 토지 사용 경비, 물류비용 등의 절감 - 사회보험료 인하 추진 - 정부의 기업 관련 심사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재고 해소	-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도시 신규 거주자의 주택 수요 충족 - 농촌 이주노동자(농민공)의 중소도시 주택마련 장려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낙후지역 재건축 시 기존 거주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보조금 지급 - 자영업자와 농민공의 주택공적금 참여 점진적 허용
유효공급 확대	- 빈곤구제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의 과업을 통합하여 빈곤퇴치 추구 - 기업의 장비 및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 첨단 스마트·환경친화적 제조업 추구 -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지원
금융 및 기타 리스크 통제	- 경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지원 및 신용 부도 위험의 체계적 감소 추진 - 정부부채의 통합적 관리 및 지방정부 채권발행 방식의 개선

자료: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 [내수 진작] 소비지출의 기본 역할과 투자의 중심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수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가 합리적 구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함.

- 민간소비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공급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와 공급의 긍정적 상호작용, 수요와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
- 2016년도 사회상품총액 증가율은 11% 내외(2015년 실적 10.7%),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5% 내외(2015년 실적 9.8%)로 유지함.
- 중앙정부 예산 투자와 특별 발전기금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 투자(PPP 등)¹⁴⁾를 유도함.

12) 关于钢铁行业脱困指导意见.

13) 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14) 2013년 PPP 추진 이후부터 2016년 2월 말 현재까지 각 지방에서 제시한 PPP 항목은 19개 분야(에너지, 교통운송, 생태건설, 환경보호, 시정 프로젝트 등)의 7,110개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8.3조 위안임. 『中國經濟週刊』(2016. 3. 7).

- [개혁 심화] 건인효과가 큰 투융자, 가격, 국유기업, 재정·세제, 금융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시장 활력을 제고함.

표 4. 2016년 중점 분야의 개혁방향

구분	주요 조치
행정간소화	- 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 규정 개선 및 서비스 향상 노력 강화 - 인터넷+ 정부서비스 확대 추진 - 부동산 등기제도 실행
투융자	- 투자관리 혁신, 투자 승인절차 간소화 - 새로운 투융자 시스템 개발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심사·승인, 모니터링 플랫폼 개선
국유기업	- 국유자본 투자회사 및 운용회사의 구조조정 - 혼합소유제 도입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 철도, 민간항공, 통신, 국방 등에 대한 시범적 개혁 실시 - 국가독점산업(전력, 석유, 천연가스, 소금 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 - 재산권 제도의 추가적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재정·세제	-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권한 및 지출 책임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도입 - 금융·부동산 건설·생활서비스 분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완료 예정
금융	- 금융기관 시스템 다양화 및 국유 상업은행, 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개혁 심화 - 민간은행 설립 제도화 지속
가격	- 전력, 석유, 천연가스, 운송 산업 등 가격통제 철폐

자료: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 [혁신주도 발전]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시행하고,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사회 전반에 촉진하며,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

-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및 연구소, 산업혁신센터 설립 등 혁신 자원의 공급 확대
- 인프라, 공공자원 저장소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신용산업의 발전을 지원
-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실행하고, 주요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제한 완화, 평등한 경쟁 장려, 생산자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감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적용 등을 통한 혁신발전 환경 조성

- [도농지역 조화발전]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촉진하기 위해 ‘3대 전략’과 ‘4대 판괴(板块)’를 핵심으로 지역별 발전전략과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정책을 구체화함.

- ‘3대 전략’은 △ 일대일로 전략 △ 징진지 공동발전¹⁵⁾ △ 창장경제벨트¹⁶⁾ 구축이며, 이는 2015년 경제운영 중

15)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3개 지역을 포괄하는 중국 3대 경제권 중 하나로, 베이징의 발전 부작용 해결과 베이징 및 톈진을 둘러싼 허베이 내 빈곤지역 발전 등을 위해 2014년 2월 시진핑 주석이 7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4), Vol. 17, No. 13 참고).

16) 윈난에서 상하이까지 창장(長江)을 따라 동서로 이어지는 중국 최대 규모의 경제권으로 11개의 상시로 구성. 이 사업은 물류, 운송, 통관의 통합을 통해 창장 유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벨트 내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함(노수연 외(2015),

점업무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본 추진방향은 그대로 유지

- '4대 판괘(板块)'는 위의 3대 전략과 함께 서부, 동북, 중부, 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제시
- 서부의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내륙개방형 경제 발전,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중부굴기의 새로운 10년 계획, 동부지역 혁신 발전을 언급
-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의 일환으로 1억 명 비도시 호적인구의 도시 정착방안 마련,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개혁 가속화를 통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도시 정착을 장려
- 신형도시화 건설의 모델로 스마트시티, 녹색도시, 스펀지도시 육성 계획 포함.

■ [저탄소·순환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발전전략으로 녹색산업 육성, 에너지자원의 이용 효율 향상, 생태환경 개선, 저탄소 발전을 추진함.

- 주요 생태기능구 진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2030년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전략 시행
- 재생에너지 처리능력 향상, 석탄 생산능력 증설과 화력발전소 규모 통제를 통한 전통에너지 소비 감축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전국적 도입,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간 남남협력(南南合作) 강화

■ [개방형 경제]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인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와 외자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함.

- 일대일로는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몽고-러시아 및 중국-인도차이나반도 등 글로벌 경제 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선진국과 협력하여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개혁으로 외자유치를 장려함.

■ [민생개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맞춤형 조치 실시, 공공서비스 관련 개혁 및 혁신 심화,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함.

- 국가 전역에 걸친 빈곤 퇴치를 위한 맞춤형 조치를 추진하고, 도농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 및 1인당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 보조금을 상향(2015년 380위안 → 2016년 420위안) 조정
- 도시 보장성주택 건설을 지속하고, 2016년 도시 판자촌 600만 채 및 농촌 붕괴위험 주택 314만 가구를 개조
- 의무교육, 의료위생, 공공문화, 장애인 재활,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의 균형 발전 촉진 을 위해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시행

라. 평가

■ 2016년은 13.5 규획이 시행되는 첫 해로, 경제운영에 있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경제운영의 중점을 둘 것임.

- 총리 업무보고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15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개혁(76회), 혁신(61회), 성장(42회), 개방(19회), 민생(18회), 조정(12회), 법치(11회), 구조개혁(10회) 등이 강조됨.

표 5. 2015년과 2016년 경제공작보고의 주요 키워드

(단위: 언급 횟수)

연도	발전	경제	개혁	구조개혁	성장	혁신	안정	개방	민생	소강사회	빈곤탈피
2016	152	90	76	10(5)	42	61	14	19	18	9	8
2015	134	85	86	1(-)	36	38	21	21	16	2	1

주: () 안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15년 정부업무보고」; 「2016년 정부업무보고」.

■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과잉설비 해소, 한계기업 정리 등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둔화 및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이 나타날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중국경제는 L자형의 성장패턴을 보일 전망
 - 전망기관들은 2016년 GDP 성장률을 6.3~6.7%, 중국 내에서는 이보다 높은 6.5~6.8%로 전망
- 2020년 샤오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2016년도 경제성장률 최저선(6.5%)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갈 것으로 예상됨.
 - 2016년에도 추가적인 지출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며, 실제 재정적자율도 목표치(3%)¹⁷⁾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2. 13.5 규획으로 본 중장기 경제운용 목표

가. 13.5 규획 개요

■ 중국 전인대에서 ‘13차 5개년 규획 강요(2016~2020년, 13.5 규획)’가 심의·확정됨.

- 2015년 10월 18기 5중전회에서 ‘13.5 규획 건의(이하 건의)’가 통과되었고, 2016년 전인대에서 ‘13.5 규획 강요 초안(이하 강요)’이 표결을 거쳐 확정됨(13.5 규획 초안은 총 20편 89장, 12.5 규획은 16편 82장).

17) 중국 재정적자율은 2015년 2.4%에서 2016년 3.0%로 확대되고, 종합재정적자율(consolidated deficit)은 2015년 3.5%에서 2016년 3.8%로 확대.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는 2015년 2.1%p에서 0.3%p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哈继铭, CICC).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 건설 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3.5 기간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유지를 목표로 설정함.

- <강요>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6대 원칙,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7대 목표,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대 발전이념을 제시함.

표 6. 13.5 규획의 원칙, 발전이념,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6대 원칙	-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6대 원칙 △ 인민 주체지위 견지 △ 과학발전 견지 △ 심화개혁 견지 △ 의법치국 견지 △ 국내외 국제 양 국면의 통합 견지 △ 당의 리더십 견지
7대 목표	-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7대 목표 △ 중고속 성장 유지 △ 혁신주도 발전 △ 균형발전 강화 △ 민생 수준 제고 △ 국민 소양 함양 및 사회문명 수준 제고 △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 제도 성숙화 및 정형화
5대 발전이념	- 13.5 규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발전이념 △ 혁신(創新) △ 균형(協調) △ 녹색 △ 개방 △ 공동향유(共享)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규획 강요 초안」.

나. 13.5 기간의 7대 목표와 주요 지표

■ [7대 목표] <강요>에서는 13.5 기간 동안 전면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해 실현해나아가야 할 7대 목표로 △ 중고속 성장 유지 △ 혁신주도 발전 △ 균형발전 강화 △ 민생수준 제고 △ 국민소양 함양 및 사회문명 수준 제고 △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를 제시함.

- 2015년 10월에 발표한 <건의>에서는 5대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강요>에서는 혁신주도 발전과 균형발전 강화의 2대 목표가 추가됨.

표 7.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한 7대 목표

목표	주요 내용
① 중고속 성장 유지	△ 연평균 GDP 성장률 6.5% 이상 유지 △ 균형·포용·지속가능 발전을 기초로 2020년 GDP와 도시·농촌 주민소득 2010년의 두 배 달성 △ 주요경제지표의 균형, 투자와 기업효율 제고, 공업화·정보화 융합발전, 농업현대화, 중점단 산업 수준 도달, 선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신산업·신업태 발전, 서비스업 비중 제고
② 혁신주도 발전	△ 창업 및 혁신의 연계발전을 통한 전체 요소생산성 제고 △ 과학기술의 집목을 통한 요소생산성 제고, 중점영역과 관련된 핵심기술 혁신, 자주혁신역량의 전면적 강화를 통한 혁신형 국가와 인재강국 반열 진입
③ 균형발전 강화	△ 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지속적 제고, 투자 및 기업효율 제고 △ 도시화 개선, 호적인구 도시화를 제고 △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프레임 형성, 발전공간 최적화 △ 대외개방 확대, 수출입구조 최적화, 국제수지 균형 유지

표 7. 계속

목표	주요 내용
④ 민생 수준 제고	△ 공공서비스(취업, 교육, 문화, 사회보장, 의료, 주택) 완비 △ 교육 현대화, 생산가능인구의 교육 연한 증대 △ 충분한 일자리 공급, 소득격차 축소, 중산층 인구 비중 제고 △ 표준 이하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곤 실현, 빈곤 현(縣) 전부 해소, 지역적 빈곤 해결
⑤ 국민소양 함양 및 사회문명 수준 제고	△ '중국의 꿈(中國夢)'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함양, 애국주의·집체주의·사회주의 사상 함양, 상호 부조·상호 신뢰의식 함양, 도덕·과학문화·건강한 소양 제고, 법치의식 제고 △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기본 건설, 문화산업의 국민지주 산업화 △ 중화 문화 영향력 지속 확대
⑥ 생태환경 총체적 개선	△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녹색·저탄소 수준 제고 △ 에너지 자원 개발·이용효율 대폭 제고, 에너지 및 자원 소모·건설용지·탄소배출량 총량 효율적 통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 주체공농구 분포와 생태안전 보호망 기본 형성
⑦ 제도의 성숙화·정형화	△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 능력, 각 영역의 기본 제도 및 시스템 정비 △ 인민민주 완비, 법치정부, 사법 공신력 제고 △ 철저한 인권 보장, 실질적 재산권 보호 △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기본 형성 △ 중국 특색의 현대적 군사체계 완비 △ 당 건설의 제도화 수준 제고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 초안」.

■ [25개 경제·사회 발전 지표] 13.5 계획 <강요>에서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경제성장, 혁신, 민생 및 복지, 자원 및 환경 등 4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제시함.

■ [중고속 성장] 13.5 기간 서비스산업화, 노동생산성 증대, 도시화를 통해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2020년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실현함.

-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 12.5(2011~15년) 7%(실적 7.8%) → 13.5(2016~20년) 6.5% 이상
 - 서비스업/GDP 비중: 50.5%(2015년) → 56%(2020년)
 - 1인당 노동생산성(신규): 8.7만 위안(2015년) → 12만 위안 이상(2020년), 연평균 6.6% 이상 증가
-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제고: 56.1%(2015년) → 60%(2020년), 2020년 호적인구 도시화율 45%(2014년 말 현재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37%로 추정) 달성
 - ※ 신규 지표: 노동생산성 증대 목표, 호적인구 도시화율

■ [혁신 발전]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진보, 인터넷경제 구현 등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추동 지향

- R&D 투입/GDP 비중: 2.1%(2015년) → 2.5%(2020년)
-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신규): 55%(2015년) → 60%(2020년)
- 이동광대역 보급률(신규): 57%(2015년) → 85%(2020년)
 - ※ 신규 지표: 과학기술진보 공헌율, 인터넷 보급률(광대역 가정보급률, 이동광대역 보급률)

■ [민생 개선] 고용보장, 소득증대, 빈곤퇴치, 사회보장, 주거환경 개선 등

- 고용 보장: 5년간 도시 신규 취업 5,000만 명 창출(12.5 기간 목표 4,500만 명, 실적 6,431만 명)
- 소득 증대: 5년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6.5% 이상 유지(12.5 기간 연평균 7.7% 증가)
- 빈곤 퇴치: 5년간 농촌지역 절대빈곤인구 5,575만 명 이상 감축
- 사회보장: 기본양로보험¹⁸⁾가입률을 2015년 82%에서 2020년 90%로 제고
- 주거환경 개선: 5년간 2,000만 채의 도시 판자촌 개조 추진
- ※ 신규 지표: 농촌 탈빈곤 인구, 도시 판자촌 개조, 생산가능인구 평균교육 연한 연장 등

■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자원절약(에너지, 물, 토지) 강화, 대기 및 수질 관리 강화, 환경물질 배출기준 강화

- 5년간 에너지 소비/GDP 소비 15% 감축(12.5 기간 목표 16%, 실적 18.2%), 용수량/GDP 23% 감축
-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감축 목표(5년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18%, COD 10%, 암모니아질소 10%, 이산화황 15%, 질소화합물 15%
- 대기질 개선: 5년간 국가표준을 초과한 도시(地極 이상)의 미세먼지(PM2.5) 농도 18% 감축,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를 2015년 76.7일에서 2020년 80일로 확대
- 수질 개선: 2020년 Ⅲ급수 이상 수질 비율 70% 이상(2015년 66%), V급수 미만 수질 비율 5% 이하(2015년 9.7%)로 유지
- 비(非)화석에너지 비중: 12%(2015년) → 15%(2020년)

표 8. 13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속도 [누적]	속성
▶ 경제성장					
(1) 국내총생산액(GDP)(조 위안)		67.7	>92.7	>6.5%	예측
(2) 노동생산성(만 위안/명)		8.7	>12	>6.6%	예측
(3) 도시화율	상주인구 도시화율(%)	56.1	60	[3.9]	예측
	호적인구 도시화율(%)	—	45	—	
(4)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0.5	56	[5.5]	예측
▶ 혁신추동					
(5) R&D 투입/GDP(%)		2.1	2.5	[0.4]	예측
(6) 발명특허 보유건수(건/1만 명)		6.3	12	[5.7]	예측
(7) 과학기술진보 공헌율(%)		55	60	[5]	예측
(8) 인터넷 보급률	광대역 가정보급률(%)	40	70	[30]	예측
	이동광대역 사용자보급률(%)	57	85	[28]	
▶ 민생·복지					
(9)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	—	>6.5	예측

18)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 + 신형농촌사회 양로보험

표 8. 계속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속도 [누적]	속성
(10)	생산가능인구 평균 교육연한(년)	10.23	10.8	[0.57]	제약
(11)	도시 신규취업인 수(만 명)	—	—	[5000]	예측
(12)	농촌 탈빈곤 인구(만 명)	—	—	[5575]	제약
(13)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82	90	[8]	예측
(14)	도시 판자촌 내 개조주택 수(만 채)	—	—	[2000]	제약
(15)	1인당 기대수명(세)	—	—	[1]	예측
▶ 자원·환경					
(16)	경작지 보유량(억 묘)	18.65	18.65	[0]	제약
(17)	신규건설용지 규모(만 묘)	—	—	[<3256]	제약
(18)	GDP 1만 위안당 용수량 감축률(%)	—	—	[23]	제약
(19)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감축률(%)	—	—	[15]	제약
(20)	1차 에너지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	12	15	[3]	제약
(21)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	—	[18]	제약
(22)	산림복개율(%)	21.66	23.04	[1.38]	제약
	산림축적량(억 m³)	151	165	[14]	
(23)	도시(地極 이상)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76.7	>80	—	제약
	국가표준을 초과한 도시(地極 이상)의 미세먼지(PM2.5) 농도 감축률(%)	—	—	[18]	
(24)	I·II·III 급수 수질 비율(%)	66	>70	—	제약
	V급수 이하 수질 비율(%)	9.7	<5	—	
(25)	COD	—	—	[10]	제약
	암모니아질소			[10]	
	이산화황			[15]	
	질소화합물			[15]	

주: 1) GDP,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는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 절대치는 당해연도 가격에 따라 계산. 2) [] 안의 데이터는 5년간 누적수치. 3) 미세먼지의 농도 국가표준은 PM2.5 35 $\mu\text{m}/\text{m}^3$ 4) 1묘(亩)는 중국식 토지면적 단위로 666.7 m^2 에 해당. 5) 본 표 속성의 '예측'은 정책시행에 따른 기대 목표를 나타내고, '제약'은 정부가 실현을 책임지는 목표를 지칭. '제약'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치임.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계획 강요 초안」.

다. 평가

■ 중국경제의 중고속 성장 시대 진입: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 6.5% 이상 달성

- <강요>에서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중고속 성장' 유지, '안정 속의 개혁'을 기본 기조로 하여 '경제발전의 뉴 노멀(新常态) 유도',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비교적 빠른 발전 유지' 등을 강조함.
- 과학기술 혁신, 혁신과 창업, 3대 수요(소비, 투자, 수출)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함.
- 인구 보너스 소멸, 환경 제약, 공급 측 개혁 추진 등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혁신, 신성장동력 산업, 도시화와 일대일로 정책, 인구정책 전환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한 성장률 둔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연구기관은 13.5 계획 기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2~6.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문가들

의 전망 역시 6.1~7.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 13.5 기간 중국 잠재성장률 추정: 샤먼대 6.8%, 국가정보센터 6.5%, 사회과학원 6.2%, IMF 6.2%.

표 9. 10.5~13.5 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적

기간	목표성장률	실적	실적-목표	기본 방향
10.5	7.0%	9.6%	2.6%p	비교적 빠른 성장
11.5	7.5%	11.2%	3.7%p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12.5	7.0%	7.8%	0.8%p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13.5	6.5% 이상	-	-	중고속 성장, 구간 조정하의 거시경제 조정

자료: 각 5개년 계획 및 CEIC.

■ 향후 5년간 중국경제는 신항산업 중심의 산업재편, 도시화와 일대일로로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구도 변화, 핵심분야의 개혁을 통한 제도 환경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 2020년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중소득 국가에 진입하게 되고, 특히 13.5 기간 소비 중심의 성장 구조로 빠르게 전환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임.
- 소강사회가 실현되는 2020년 1인당 GNI는 12,822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은행의 중소득 국가 기준(12,746 달러)을 상회
- 중산층의 확산과 80후(后)와 90후(后) 등 신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시장도 재편
- 향후 신형 도시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경제, 서비스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가 중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과 대도시권 형성으로 지역시장이 통합 발전되어갈 것이며,¹⁹⁾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내 인프라 및 도시간 연계 인프라 건설로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 전략, 전략적 신흥산업²⁰⁾ 육성전략 등이 중국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보완해갈 것임.
-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면 서비스산업 비중이 제고되고, 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임.²¹⁾
- 중국의 적극적 해외진출, FTA 네트워크 강화, 위안화 국제화, 일대일로 전략 추진 등으로 세계경제 및 금융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19) 정진자·장삼각·주삼각 등 3개의 세계적 대도시권, 동북지구·중원지구·창장중류·성위(성도·중경)지구·관중평원 등 5대 도시권을 형성함.

- [중심 도시] 일련의 중심 도시를 발전시켜 구역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인프라 연결을 강화함.

20)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2011~14년 연평균 26.5%씩 성장하였고, 동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목표)에서 2015년에는 15%로 높아질 것임.

21) NDRC의 산업기술경제연구소는 13.5 기간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3%p에 이를 것이며, 특히 8대 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13.5 기간 연평균 성장률 예측치: 12%), 인터넷정보서비스업(15%), 관광업(14%), 문화산업(동 13%), 생명·건강 서비스업(15% 이상), 양로산업(15% 이상), 금융업(15% 이상), 현대물류업(8% 내외) 등을 제기함(『中國發展觀察』, 2016년 제5기).

- 해외투자 확대, 적극적 FTA 추진, 국제산업협력 강화, 위안화의 SDR 편입과 무역결제 확장을 통한 국제화
- ‘일대일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NDB) 설립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3.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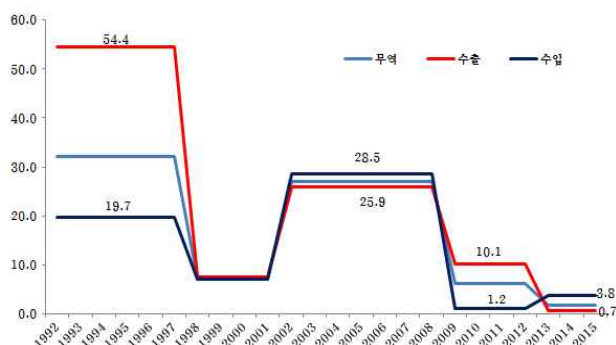
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에 대한 영향

■ 2014년과 201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며, 2016년에도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유가하락에 따른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감소, 중국의 제조업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용 중간재 수출 부진, 세계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가공용 중간재 수출 둔화에 주로 기인함.
- 유가하락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둔화,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LCD 패널 등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2015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전년대비 7.7% 감소함.
- ※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운환유류, 자동차부품은 각각 15.6%, 39.6%, 5.6% 감소한 반면, 전자 및 기계류 등의 대중국 부품 수출은 3.2% 증가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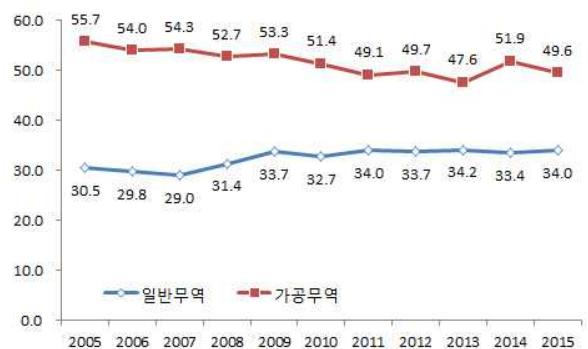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DB.

그림 2. 한·중 양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6년에도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요인, 중국 내수 부진,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불가피함.
- 대중국 수출: [2014년] 1,453억 달러(-0.4%) → [2015년] 1,371억 달러(-5.6%) → [2016년 전망] 1,311억 달러(-4.4%, 산업부 전망)

■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함. 즉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중국의 수입은 일반무역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 비중이 높음.
 - 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가공무역 49.6%(2014년 51.9%), 일반무역 34.0%(2014년 33.4%)
 - 중국 수입 중 일반무역 비중: (2011년) 55.7% → (2014년) 56.6% → (2015년) 55.0%
-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제조업 구조조정, 중국의 국산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Inside China) 정책도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중간재 무역특화 지수: (2000년) -0.38 → (2013년) -0.21 → (2014년) -0.18
 - ※ 중국 TOP 5 TV 기업의 자국산 LCD 사용 비중: (2015.1Q) 30.2% → (2015.4Q) 35.9%
- 중국의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 부진, 가공무역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절하로 인한 중국의 경쟁력 상실, 세계경기 부진과 연계된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임.

■ 중국의 경기 둔화, 임금상승, 경쟁격화 등으로 주요 대기업의 일부 생산거점이 동남아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점차 위축될 것임.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14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세 시현
 - 한국의 대중국 투자: [2013년] 51.48억 달러(+27.2%) → [2014년] 31.59억 달러(-38.6%) → [2015년] 28.55억 달러(-9.6%)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금속가공 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대베트남 투자가 증가함.
- 중국의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나, 중국 진출기업의 환경관련 비용, 인건비 상승 등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외환관리제도 개선 및 자본 항목의 자유태환 실현 등 전반적으로 중국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환경 및 토지 규제 강화, 임금 단체협상 도입, 자원가격 개혁 등으로 관련비용 상승이 불가피

■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중저위 기술 중간재의 수입대체가 진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도 격화될 것임.

- 중국의 가공무역 확대기에 한국은 범용기술로 수출용중간재를 공급하면서 호황을 누려왔으나,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가 진전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자제품, 액정 디바이스, LCD 패널 등 신기술이 구현된 신제품은 출시주기가 짧은 특징이 있으므로 수출제품 첨단화·고급화가 절실함.
- 기초 소재의 자급도 제고, 인터넷 융합정책 등을 통해 제조업 전 분야의 중국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 23개 세부 프로젝트와 한국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다수 중첩 등으로 향후 한·중 간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나. 대응방향

■ [단기대응] 대중국 수출 둔화를 극복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만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유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5년 11.6%를 정점으로 2011년 9.3%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5년 10.4%로 상승(가공무역용 수입시장에서 점유율도 18.8%에서 19.3%로 상승)
-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내구소비재를 비롯해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소비재 수출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
- 2015년 한국의 내수용 수출액은 593억 달러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4년 5.73%에서 2015년에는 6.42%로 상승
- ※ 대중국 내수용 수출 호조 소비재: 과즙기, 정수기, 유제품, 비스킷, 콘택트 렌즈, 샴푸 및 세제, 살균제 등

표 10.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증가율과 점유율

(단위: %)

구분		구성(2015년)		전년대비 대중 수출 증가율		한국점유율		
		중국 수입	한국의 대중 수출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100.0	100.0	1.7	-6.8	5.6	5.7	6.4
중간재	소계	71.5	79.6	2.2	-6.9	5.9	6.1	7.1
	연료 및 윤활유	14.8	3.7	-0.4	-9.0	1.0	1.0	1.6
	부품	15.7	33.0	5.6	-3.8	14.2	13.3	13.5
	산업용원자재	41.1	42.8	0.0	-8.9	6.1	6.3	6.7
자본재		11.8	14.7	-2.6	-5.3	8.4	7.8	8.0
소비재		10.4	5.6	5.5	-8.7	3.7	3.4	3.5

자료: 중국해관통계 이용 저자 작성.

■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타결 노력과 함께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서비스·투자 협상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진출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이 FTA 추진에 있어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고 있으며, 13.5 기간 내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 민대우 부여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것임.
- 지방정부의 기업 애로해소 창구 조기 지정, 한중산업원구(韓中産業園區)의 조기 정착 등 한·중 FTA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 한·중 FTA의 지방간 협력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FTA 협력 시범구 조성을 추진
- 중국 수입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도를 제고함.

■ 기존의 가공용 중간재 수출에서 내수용 중간재 수출로 전환하고, 소비재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고객기업, 전문 도매유통기업, 온라인 유통체인과의 사업협력,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역직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망에 대한 한국관 설치,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신유통망(모바일, SNS 등) 등을 통한 중국 소비시장 진입력 강화 필요
-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웨이보, 알리페이 등 중국 현지계정을 통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과 결제수단을 개발하거나, 중국 인터넷 쇼핑몰 내 한국제품 전용관 설치 및 제품 라인업 강화 노력 필요
 - ※ 중국 내 2015년 전자상거래 상품판매는 31.6% 증가하였고,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역직구) 가운데 중국이 42.2%(4,567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해외직구)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34.3% 점유

■ [중장기 대응]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공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

-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신규수요 부합제품 개발로 수입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제품의 고도화가 절실함.

■ 중국이 13.5 기간 추진하고자 하는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행동전략, 농업현대화, 서비스업 육성 등에 따른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포착 노력 강화 필요

- ‘중국 제조 2025’ 추진에 따른 중국의 신성장 산업에서 한국의 핵심 부품과 소재의 공급능력 강화, 기술협력 추진: 바이오·의약, 로봇,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등
- 인터넷+ 및 차세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인터넷 금융, 인터넷 오락, 인터넷 교육, 인터넷 의료
-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의료·양로 서비스, 상업보험 등 서비스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에 따른 진출기회 활용

표 11. 13.5 기간 중국의 산업분야 중점 프로젝트

분야	주요 중점 프로젝트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 프로젝트	-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심해 정저장 △양자(量子)통신 및 컴퓨터 △뇌과학 및 두뇌관련 연구 △국가네트워크 보안 △우주탐사, 우주선 궤도 서비스 및 유지보수 시스템 - 중대 공정: △중자산업 자주혁신 △선탄(coal cleaning) 고효율 이용 △스마트그리드 △우주항 공일체화 정보 네트워크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업 및 로봇 △중점 신재료 연구개발 및 응용 △징진지(京津冀) 사회 치안 종합관리 △건강보장
농업 현대화	- 고표준 농경지 건설, 현대 중자산업, 물 절약형 농업, 농업 기계화(2010년 농업 기계화율 70% 달성), 스마트 농업, 농산물 품질 안전, 신형 농업 경영주체 육성(산업화 시범기지)

표 11. 계속

분야	주요 중점 프로젝트
제조강국 전략 실시	- 제조강국 전략: 중국제조 2025 실시 · 공업기초 강화: 기초 원료, 기초 부품, 기초 소재, 기초 가공기술 등 4대 공업기초 공정 강화 (2020년까지 핵심 기초 부품·기초 소재의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로 제고) · 신형 제조업 강화: 중국제조+인터넷 추진, 스마트 제조, 품질·브랜드 건설 강화, 전통산업 Up-grade, 과잉 생산 완화, 기업의 생산비 절감 - 첨단장비 혁신발전 프로젝트 · 우주항공장비 및 부품, 해양장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장비, 첨단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봇장비(공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군사용), 현대 농기구장비(고마력 트랙터 등), 고성능 의료기기, 선진 화공플랜트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 2020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비중 15% 달성(2015년 목표 8%) · 신흥산업: 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기술, 녹색·저탄소, 첨단장비 및 첨단소재, 디지털 디자인 산업 발전 · 전략적산업 육성: 항공해양, 정보인터넷, 생명과학, 핵기술 등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중점 프로젝트 · 차세대 정보기술산업(반도체, 인공지능,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 이동단말기, 5G 통신, RV 등), 바이오산업(의료, 신형 약물, 바이오 육종 등), 공간정보 스마트 감지기, 에너지저장 및 분포식 에너지(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소재(스마트 소재, 나노 소재, 차세대 반도체, 고성능 탄소섬유 등), 신에너지 자동차(BEV, PHEV, 13.5 기간 누적 판매량 500만 대, 신에너지 자동차 폐기 배터리 회수처리)
서비스산업 발전	- 생산성 서비스업 전업화와 생활서비스업 육성 · 공업 설계 및 디자인, 프로젝트 자문, 비즈니스 자문, 법률 및 회계, 현대 보험, 신용평가, A/S, 검사·인증, 인력자원 서비스 등 발전 · 3자물류, 녹색물류, 콜드체인물류, 도시농촌 배송 발전 · 교육, 건강·양로, 문화오락, 체육·건강, 관광, 가정 서비스 등 생활서비스업 육성 - 서비스업 개방 확대 · 경쟁성 공공 서비스(전력, 민항,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정, 시정공용 등) 개방 가속화 ·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상업물류 서비스 개방 확대 · 의료, 교육, 탁아, 체육 서비스 발전, 정부조달구매 서비스 범위 확대
인터넷경제 공간 개척	- 인터넷망 구축 산업체계 구축: 인터넷 강국 전략 실시, 인터넷+ 행동계획, 국가 빅데이터 전략 · 차세대 인터넷망 구축: 차세대 광선망 구축, 선진 광대역 무선망, 5G 이동통신, IPv6 - 정보화 중대 프로젝트 · 광대역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 및 응용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빅데이터, 국가관리 업무의 정보화, 전자상거래, 인터넷 안전(S/W, 핵심칩)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 초안」.

■ 중국의 신형 도시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 고도화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두자녀정책 시행,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진출 기회 모색

- 중국의 도시화 대응력 강화: 스마트 시티, 스펀지 도시,²²⁾ 도시지역 지하망 건설, 환경 설비, 오수 처리, 충전소,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 신형 도시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에 따른 진출기회 활용
- 두자녀정책 대응: 영유아용품, 분유, 아동 의약, 만화 및 동영상, 완구, 아동의류, 조기교육 등 두자녀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진출기회 활용

22) 스펀지도시(海绵城市):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도시화작업회의 연설에서 자연축적·자연침투·자연정화 기능을 하는 ‘스펀지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함. 스펀지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비가 오면 도심이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하는 칸하이(看海)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체계와 물 저장시설을 갖춰 빗물 등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KOTRA 해외비즈니스 포털, 「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건설 추진」).

- 에너지 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응: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에너지 저장설비 협력 등
- 건강한 중국 건설에 대한 대응: 의료서비스(스마트 의료, 건강검진), 의약, 건강식품, 녹색식품, 환경 설비 등 식품안전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활용 **KIEP**

표 12. 13.5 기간 교통, 에너지, 도시와 분야 중점 프로젝트

분야	주요 중점 프로젝트
교통건설의 중점 프로젝트	- 고속철도(고속철도의 총 운영노선 3만 km, 80% 이상 대도시 연결), 고속도로(약 3만 km 고속도로 신규 개설), 민간공항(민간공항은 50개 이상 신규 건설), 항구·항운시설, 광역도시권 교통 및 도시 궤도교통망 건설(3,000km 도시궤도망 건설), 스마트 교통
에너지 발전 중대 프로젝트	- 고효율 스마트 전력시스템, 석탄의 고효율 이용(신규 발전소는 평균 석탄소비량을 매 kwh당 평균 300g 이하로 조정), 재생에너지(수력 발전 6,000만 kw 건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광열 발전 시범사업,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 원자력발전(기존발전소 설비용량 목표 5,800만 kW, 건축 중인 발전소 설비용량 목표 3,000만 kW 이상), 비전통 석유가스(석탄층 메탄산업화, 셰일 가스 답사개발, 오일샌드, 심해원유,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화), 에너지 수송경로, 에너지 저장설비(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저장), 에너지 핵심 기술 및 장비
신형 도시화 건설 중대 프로젝트	- ‘3개 1억’ 도시화, 신생 중소도시, 특색 소도시, 스마트 도시, 녹색·산림 도시, 스펀지도시(海綿城市), 지하종합 공동구(도시 수도·오염수 공동구, 도시 전력·통신망 공동구), 아름다운 농촌(재생에너지, 농업폐기물 자원화)
건강한 중국 Action Plan	- 질병예방 및 기본 공공 위생서비스(심장·뇌·혈관 질환, 암, 만성 호흡계통 질환 등 중대 질환 및 난치병 치료 기술), 여성 및 아동 건강 보장(분만대 8.9만 개, 산부인과 의사 및 조산사 14만 명 확충), 선천성 결함 예방, 일차 의료위생 서비스 수준 제고, 중의약 전송 및 혁신, 스마트 의료, 건강검진, 식약 안전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 초안」.

부표 1.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5년 실적과 2016년 목표

구분	경제지표	2015년		2016년 목표
		목표	실적	
성장	경제성장률(%)	약 7.0	6.9	6.5~7.0
생산	식량생산(억 톤)	5.5 이상	6.21	5.5 이상
국내 수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5	9.8(실질 11.8)	10.5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3	10.7(실질 10.6)	11.0
취업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만 명)	1,000 이상	1,312	1,0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4.05	4.5 이내
대외 경제	무역증가율(%)	약 6	-7.0	세계시장 점유율 유지
	비금융기구 해외투자액(억 달러)	1,130	1,180	1,300(+10% 내외)
	비금융기구 외국인투자액(억 달러)	1,200	1,263	1,280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약 3.0	1.4	3.0 내외
재정 금융	M2 증가율(%)	약 12	13.3	13.0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	12.4	13 내외
	재정적자/GDP(%)	2.3	2.4	3.0
	재정적자(조 위안)	1.62 (중앙 1.12, 지방 0.5)	1.62 (중앙 1.12, 지방 0.5)	2.18 (중앙 1.4, 지방 0.78)
자원 환경	GDP당 에너지 소모량 감축률(%)	3.1 이상	5.6	3.4 이상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3.1 이상	6.6	3.9 이상
	GDP당 용수량 감축률(%)	-	-	5.1
	COD 배출량 감축률(%)	2.0 내외	3.1	2.0
	이산화황 배출량 감축률(%)	2.0 내외	3.6	2.0
	암모니아 배출량 감축률(%)	3 내외	5.8	3.0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률(%)	5 내외	10.9	3.0
	PM2.5 표준 미달도시의 농도(%)	-	-	3 미만
	지급 이상도시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	-	77
	Ⅲ급수 이상 비율(%)	-	-	66.5
	V급 미달 수질 통제비율(%)	-	-	9.2 이내
도 시 화	호적인구 도시화율(%)	37.9	-	+1.3%p
	상주인구 도시화율(%)	55.77	56.10	-
	도시 지하종합관 건설(km)	-	-	2,000
민생	농촌 절대빈곤인구 감축(만 명)	1,000	1,442	1,000 이상
	도시 보장성주택 건설(만 채)	740	783	-
	판자촌 개조(만 채)	-	-	600
	농촌 위험주택 개조(만 호)	-	432	314

주: 도시 호적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도시 호구(户口)를 취득한 인구를 뜻함.

자료: 「정부업무보고」;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부표 2. 12차 5개년 계획 주요지표 목표와 실적

지표	목표		실적	
	2015년	연평균 증가속도 [누적]	2015년	연평균 증가속도 [누적]
▶ 경제성장				
(1) 국내총생산액(GDP)(조 위안)	—	7%	67.7	7.8%
(2)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47	[4]	50.5	[8.5]
(3) 상주인구 도시화율(%)	51.5	[4]	56.1	[8.6]
▶ 과학기술교육				
(4) 9년제 의무교육 시행률(%)	93	[3.3]	93	[5.7]
(5) 고등학교 입학률(%)	87	[4.5]	87	[4.5]
(6)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GDP 대비, %)	2.2	[0.45]	2.1	[0.35]
(7) 발명특허 보유건수(건/1만 명)	3.3	[1.6]	6.3	[4.6]
▶ 자원환경				
(8) 경작지 보유량(억 모)	18.18	[0]	18.65	[0.47]
(9) 공업부가가치 단위당 용수량 감축률(%)	—	[30]	—	[35]
(10) 농업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	0.53	[0.03]	0.532	[0.03]
(11) 비화석 연료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11.4	[3.1]	12	[3.7]
(12)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 감축률(%)	—	[16]	—	[18.2]
(13)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	[17]	—	[20]
(14) 주요오염물 배출량 감축률(%)				
화학적 산소요구량		[8]		[12.9]
이산화황	—	[8]	—	[18.0]
암모니아질소		[10]		[13.0]
질소산화물		[10]		[18.6]
(15) 산림증가				
산림복개율(%)	21.66	[1.3]	21.66	[1.3]
산림축적량(억 m³)	143	[6]	151	[14]
▶ 국민생활				
(16)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	>7%	—	7.7%
(17)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위안)	—	>7%	—	9.6%
(18) 도시 등록실업률(%)	<5	—	4.05	—
(19) 도시 신규취업 인 수(만 명)	—	[4500]	—	[6431]
(20) 도시 기본양로보험 가입 인 수(억 명)	3.57	[1]	3.8	[1.23]
(21) 도농 3가지 기본의료보험 가입률(%)	—	[3]	—	[>3]
(22) 도시 보장성주택 건설(만 채)	—	[3600]	—	[4013]
(23) 총인구(억 명)	<13.90	<7.2%	13.75	—
(24) 1인당 기대수명(세)	74.5	[1]	76.34	[2.8]

주: 1) GDP, 주민소득의 증가속도는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 절대치는 당해연도 가격에 따라 계산. 2) 2015년 경작지 보유량은 제2차 전국토지조사 자료에 따라 업데이트. 3) [] 안의 데이터는 5년간 누적수치. 4) 1묘(亩)는 중국식 토지면적 단위로 666.7m²에 해당.

자료: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5개년계획 강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5개년계획 강요 초안」.